



보도자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배포일	2024년 6월 24일 (월) (총 2쪽)	담당부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홍보위원회
		담당자	권재우(홍보이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2024년 세계알레르기주간”을 맞아
올해 캠페인 주제인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교육홍보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세계알레르기기구(World Allergy Organization, WAO)는 전 세계 111 개 지역 및 국가 알레르기학회와 임상면역협회로 구성된 국제연합으로, 매년 세계알레르기주간(World Allergy Week)을 정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질환을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024 년 세계알레르기주간 (6 월 23 일~29 일)의 주제는 식품알레르기 ("OVERCOMING FOOD ALLERGY OBSTACLES") 이다.

이에 맞추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국내 알레르기주간 캠페인을 "식품알레르기: 제대로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로 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중 인식 증진을 위한 세부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 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 모든 연령대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 식품 알레르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전문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진단을 놓치거나 과잉 진단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무분별한 식품 제한은 영양소 부족과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 환자들은 알레르기 전문의와 식품 알레르기에 능숙한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품 알레르기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급성 질환인 식품 아나필락시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식품 및 물질에 대한 아나필락시스도 증가 추세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불편을 겪는 것이

모두 알레르기 반응은 아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한 식품 섭취 직후에 두드러기, 구토 등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의심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식품 알레르기로 생각하는 불편한 반응이 실제로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에서 정확한 진단없이 불필요한 식이 제한 등으로 영양소 부족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전문의 진료없이 혈액검사 등의 알레르기검사—만으로 식품 알레르기로 판단하고 식이 제한을 하는 것이 큰 문제다. 통상적인 알레르기 검사 결과만으로는 식품 알레르기를 진단하고 식이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실제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는 반드시 알레르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된 경우, “피해야 할 식품의 범위”와 “안전한 대체 식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학교 등의 기관에서의 관리를 위해 알레르기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학회 유튜브 채널에 “식품 알레르기” 교육,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https://youtu.be/NtjwqxhMCH4?si=ZcsayYT4sJJ79_BD), 세계알레르기주간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학회원들이 각 기관과 병의원에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개최하도록 하였다.